고흥 거금도 솔라테마파크 가시화

郡-獨 IBC솔라사 협정서… '모듈공장' 양해각서도

고흥군이 독일 태양광 발전회사인 IBC 솔라사와 3천200억원 규모의 '거금 솔라 테마파크' 조성사업 협정서(MOA)와 '솔라 모듈공장 설립'관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협정식에는 독일측에서 바이에른 주 스피치네어(Spitjner) 부지사, IBC 솔라사 대표 우도 뫼어쉬테트 회장 등 15명과 박병종 고흥군수, 이상면 전남도 정무부지사, 정동수 KOTRA 단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독일 IBC 솔라사는 고흥군 거금도 폐석산 부지 13만평에 올해부터 2010년까지 세계 최대규모인 40㎿급 태양광발전소와 홍보관, 조경시설 등을 건립한다.

IBC사는 고흥군에 수익금의 30%(연 80억원 전망)를 환원하고 20년 후 시설물들을 기부 채납한다.

또 IBC사는 20㎿ 규모의 태양열 전열판을 생산하는 모듈공장을 건립하고 한방휴양타운 유치협력 등 지역발전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거금 솔라 테마파크 외자 유치는 우주항공·그린·건강산업 육성방안 중 하나로 민선 4기 경제 살리기의 시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허브' 고흥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글로벌 그린 에너지 테마 랜드' 조성 사업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고부가 가치 기능성 녹두 신품종 개발

농기원 김동관박사팀 … 고소득 기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기능성 녹두(綠豆) 신품종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김동관 박사팀은 3년간의 연구끝에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고 병해에 강한 신품종인 소현녹두〈사진〉와 다선녹두 2품종을 육성했다.

소현녹두는 미백(美白)효과가 탁월한 비텍신 성분이 풍부하며 다선녹두에는 항암 및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이에 따라 소현녹두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다선 녹두는 기능성 녹두나물로 고 소득이 기대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에 개발된 신품종 녹두를 나주와 무안·신안 등 주산지역에서 시험재배한 뒤 일반농가에 확대 보급, 지역 특화작목 및 벼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은 전국 재배면적의 55%인 700여ha에서 녹두가 재배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라오스 부총리 여수 방문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관심

경제 협력차 한국을 방문 중인 솜사왓 랭사왓(Somsavat Lengsavad) 라오스 부총리가 28일 여수를 방문한다.

솜사왓 부총리 일행은 이날 여수국가산업단지내 남해화학을 둘러보고 공장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현황을 설명받은 뒤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인 순천시 서면 B&D에너지㈜를 방문한다.

에너지난이 심각한 라오스 정부는 바이오 디젤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준비중인 여수시는 이날 여수공항에서 솜사왓 부총리를 만나 국제박람회사무국(BIE) 회원국인 라오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목련꽃 따 먹는 직박구리

봄기운이 완연한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직박구리 한 마리가 목련 꽃잎을 따먹느라 부산하다. 잿빛을 띤 어두운 갈색의 깃털을 지닌 직박구리는 겨울에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텃새다.

/연합뉴스

영암 용산~독천간 지방도 임시개통

왕인문화축제 기간

왕인 축제기간 동안 학산면 용산리~학산면 독천리 학산 IC간 지방도가 임시 개통된다.

전남도는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왕인문화축제기간 동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축제일보다 5일 앞당긴 26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학산면 용산리에서 독천리를 연결하는 3.9㎞를 임시 개통할 계획이다. 영암읍에서 독천을 잇는 지방도 819호선은 오는 2008년 준공 목표로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목포, 삼호 방면에서 학산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고 곧 바로 왕인문화 축제장으로 연결돼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도 2호선에서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지방도 16㎞는 오는 2008년 12월에 완전 개통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완도경찰 '현지민원처리' 큰 호응

완도경찰서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지민원처리팀'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지민원처리팀은 지난 14일 신지파출소를 방문, 민원을 처리한데 이어 26일에는 경찰서 행정선을 이용, 노화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민원 처리팀 10명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시험과 수사민원, 조사 및 상담, 개인소지 총기류 안전점검 등 다양한 민원을 처리했다.〈사진〉

지난 7월 부임한 안동준 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섬지역을 방문, 도서민의 시간적·경제적 제약요인을 해소해 주고 있어 '국민에게 감동주고 신뢰받는 경찰'상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부채장·소목장·서옥고분군 담양군 향토문화유산 지정

담양군은 최근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를 갖고 부채장과 소목장, 중옥리 서옥고분군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담양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은 창평 남극루, 대성사, 죽산 매구굿 등 모두 1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지정 의결된 부채장 기능보유자 김대석(59)씨는 3대째 부채 제작기술을 간직해 왔다. 김씨는 대나무 초지 만들기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이 바르기까지 기술을 연마해 제작하는 보기 드문 경우로, 접선(摺扇)을 주로 제작하고 무용선(舞踊扇)의 작품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또 소목장(小木匠) 김생수(57)씨는 40여년간 소목 기술을 익혀 남도 가구의 특징인 대칭미와 단순미를 살리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면 중옥리에 있는 서옥고분군은 6세기 전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영산강 유역의 기존 매장방법과 다른 수혈식 석곽으로, 담양 지역 고대사를 밝힐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3건의 향토문화유산은 20일간 지정예고 한뒤 군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담양=차재화기자 jhwha@

여수박람회 유치 붐 조성 '시티버스투어' 연중 운행

여수시가 2012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28일부터 시티 투어 버스를 연중 운행한다.

시티 투어 버스는 매일 한차례 여수역을 출발해 오동도, 진남관, 돌산대교, 전남도 해양수산과학관, 향일암, 여수수산시장을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어른(대학생)은 3천원, 장애인·군경·경로자는 2천원, 초·중·고생은 1천원이며 관광지 입장료와 오동도 유람선 관광 요금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45인승 버스로 운행되는 시티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하루 전까지 전화(061-666-1201)나 인터넷(www.yeosu.go.kr)으로 예약해야 한다.

여수시는 일단 외지 관광객 중심으로 운영하되 향후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코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강진 공용터미널 35년만에 신축

25억 들여 2층 규모

강진 공용터미널이 35년만에 현대식 복합건물로 신축된다.

강진군은 강진읍 평동리 현 터미널을 헐고 25억원을 들여 연건평 700여평, 2층 규모의 터미널을 신축하기로 했다.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공사에 착수해 9월 중순께 완공할 계획인 신축 터미널 1층에는 대합실과 매표소, 매점, 약국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한의원, 치과 등 의료시설과 사무실이 입주한다.

자동 냉·난방시설은 물론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며 주차장, 조경시설 등도 갖추게 된다. 특히 외벽은 컬러유리와 복합알루미늄 패널 등 현대적 감각과 고급스러움이 배어나는 건물로 신축한다.

지난 1972년 건립된 강진터미널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냉·난방 시설이 없어 하루 3천여명의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강진군은 공사기간중에는 터미널 입구 택시 승강장 부근에 임시 터미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